

# 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2022년 1월~2월 임금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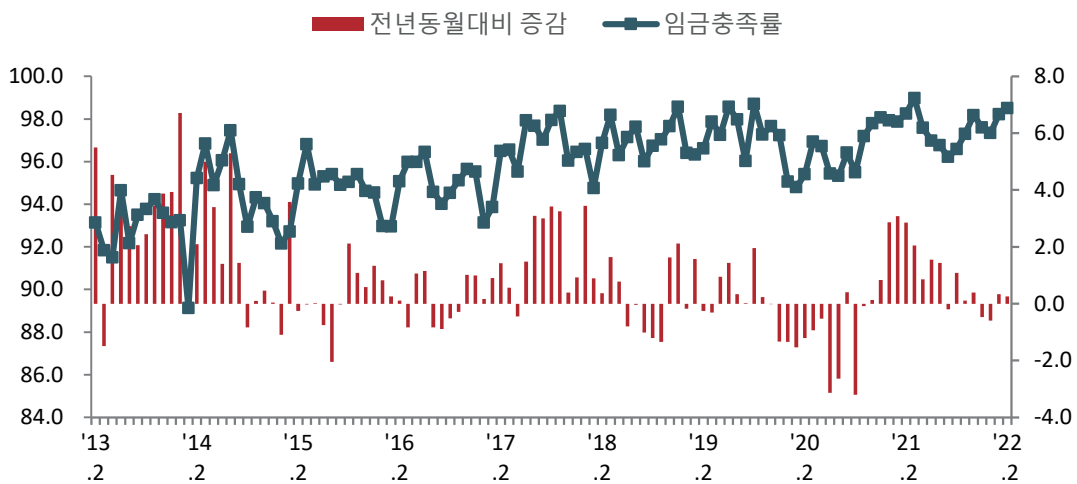
—  
남예지 (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)

## 2022년 2월 기준 임금충족률

- 2022년 2월 신규구인인원은 261천 명, 신규구직건수는 377천 건, 평균 제시임금<sup>1)</sup>은 215.0만 원, 평균 희망임금<sup>2)</sup>은 218.3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8.5%로 나타남.  
- 전체 임금충족률의 경우, 전년동월대비 0.3%p 증가함.

〈임금충족률 추이〉

(단위: %, %p)



주: 1) 좌축=임금충족률(%), 우축=전년동월대비 증감(%p).

2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
3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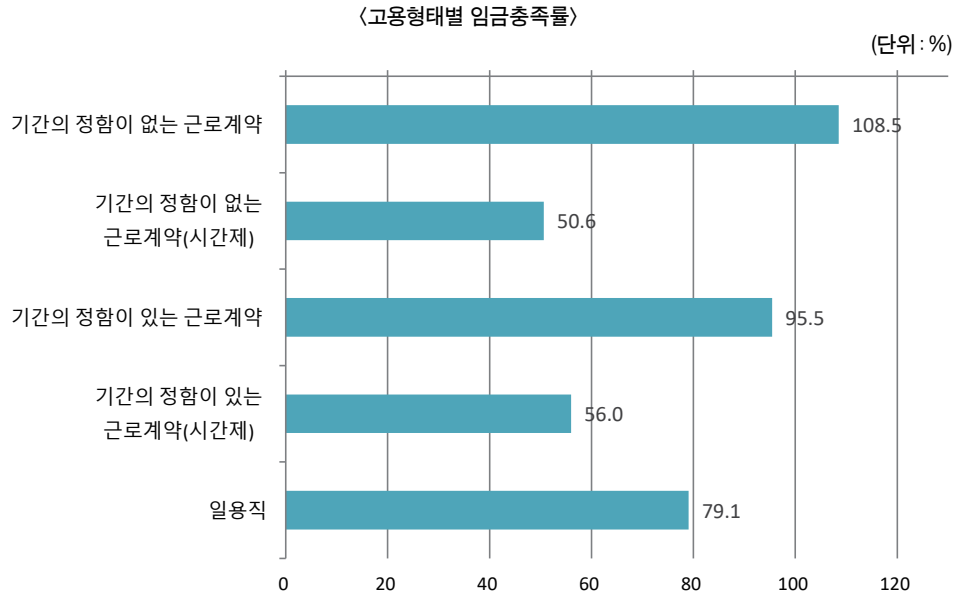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1) 구인업체가 구인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.

2) 구직자가 구직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요구하는 임금.

-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이 전년동월대비 4.8%p 증가한 108.5%로 가장 높은 수준임.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시간제)'은 전년동월대비 소폭(0.6%p) 증가하였으나 가장 낮은 수치(50.6%)를 기록함.

- 시간제 형태의 경우, 전체 평균(98.5%)을 크게 하회함.



주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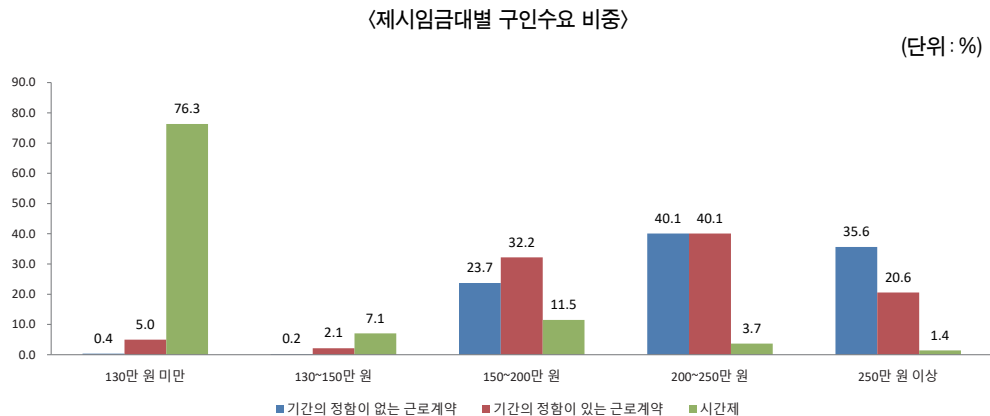
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2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살펴보면,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 및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과 시간제 고용형태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.

-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과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은 모두 200만~250만 원에서 구인수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각각 전년동월대비 4.2%p, 6.8%p 증가함.

- 시간제 고용형태는 130만 원 미만에서 70%가 넘는 구인수요가 발생하였으며, 구인업체가 시간제 고용 형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

주: 1)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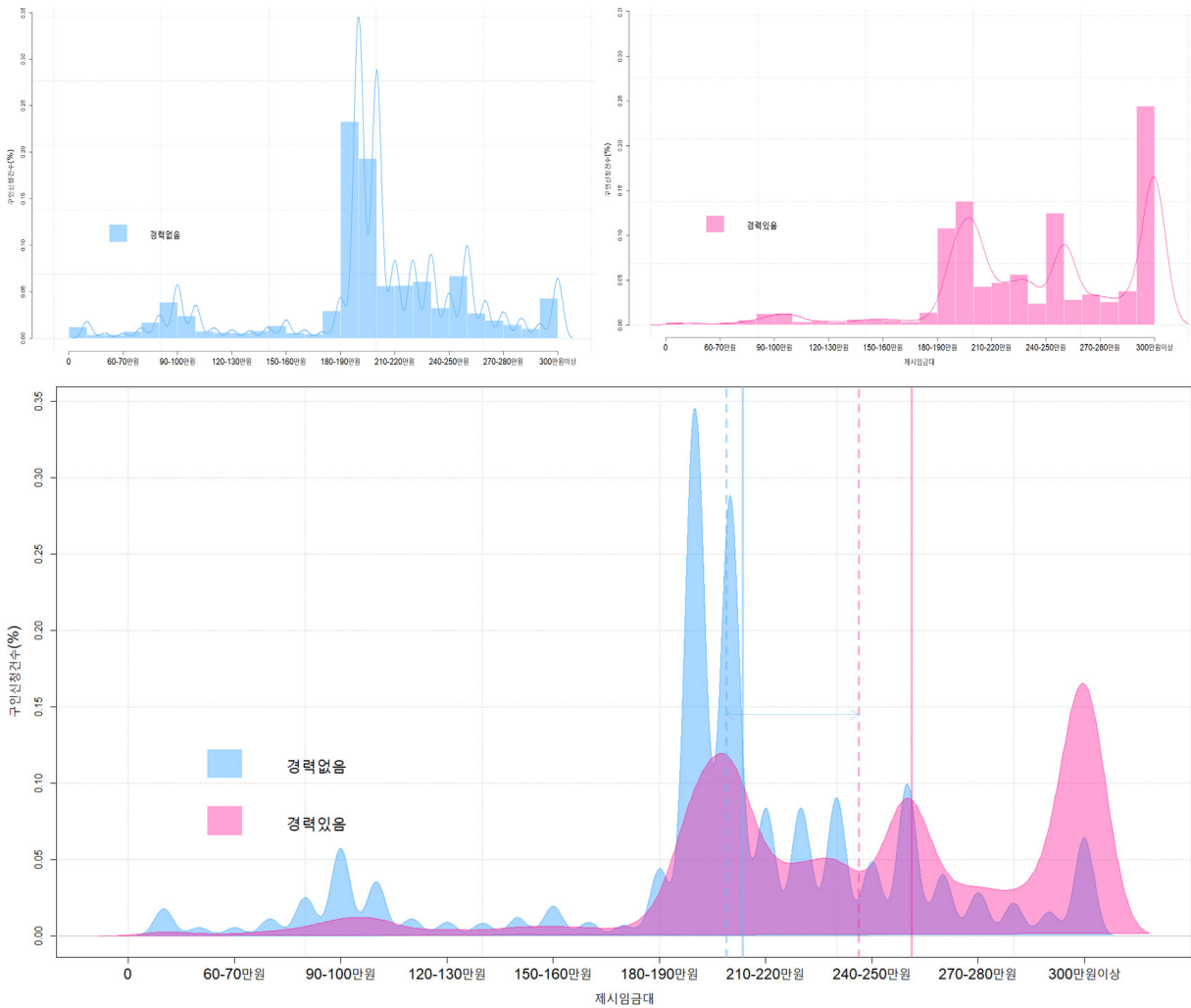
2) 제시 '월' 임금임.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## 2022년 1월 기준 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및 희망임금 분포 비교

-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.
  - 신규직은 190만~200만 원과 200만~210만 원을 중심으로 분포가 형성된 반면, 경력직은 300만 원 이상에서 구인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신규직 대비 높은 구간에서 분포가 형성됨.
  - 제시임금 평균(그림상에서 실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직은 203.4만 원, 경력직은 251.2만 원으로 나타남. 분포 평균<sup>3)</sup>(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)으로 보면, 신규직의 제시임금은 200만 원대에, 경력직의 제시임금은 240만 원대에 위치함.

〈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21년 9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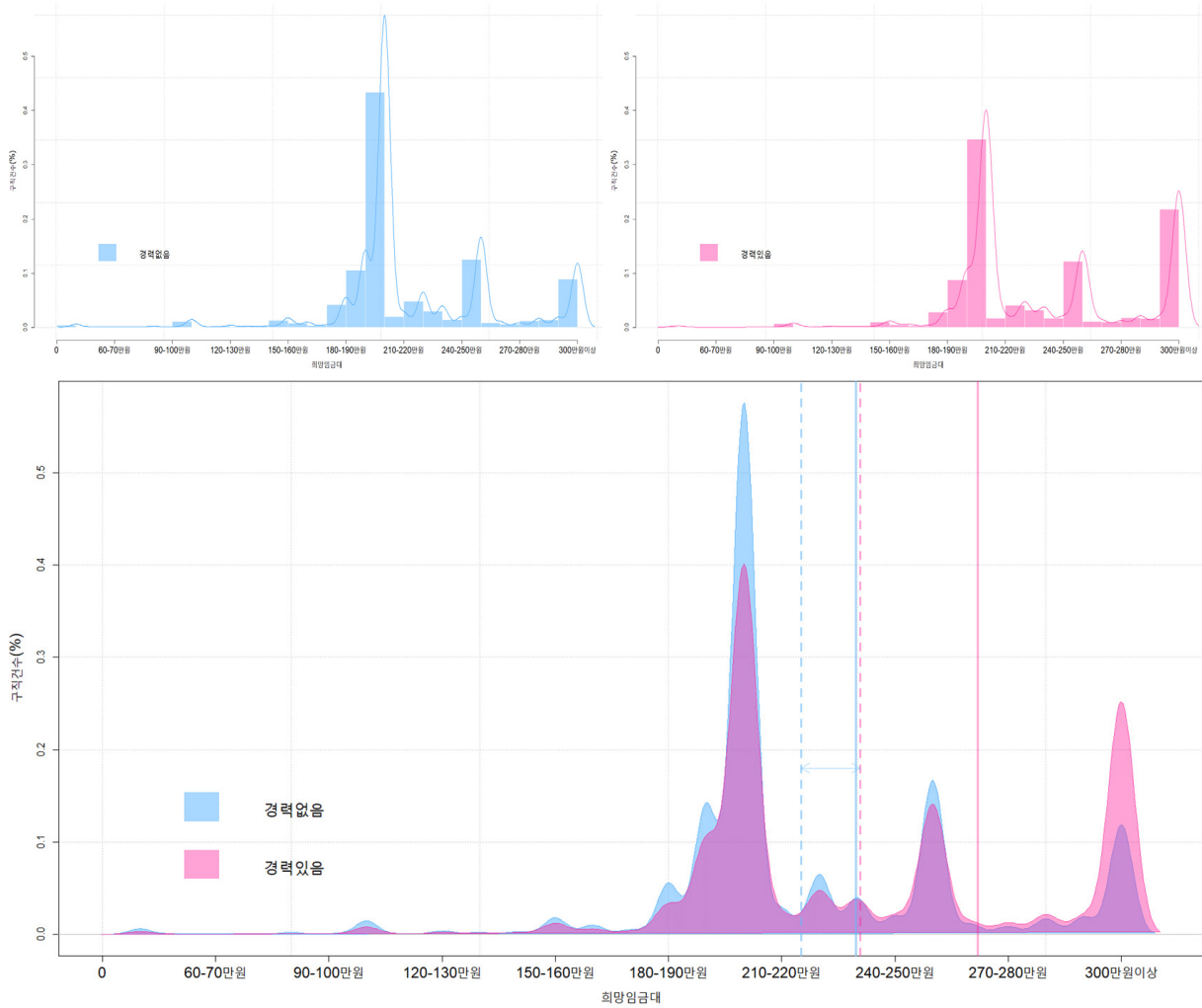
2) 제시 '월' 임금이며, '분류불능(응답자오류)'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3) 희망임금을 '50만 원 이하'와 '300만 원 이상'을 양 끝으로 하는 10만 원 단위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(그림의 가로축 참고), 평균적으로 구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.

-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가 다소 있음.
  - 신규구직자와 경력자의 희망임금은 모두 200만~210만 원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. 경력자는 300만 원 이상에서도 구직 빈도가 높게 발생한 반면, 신규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함.
  - 경력유무별 희망임금 평균(그림상에서 실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구직자가 229.7만 원, 경력자가 261.9만 원 수준임. 분포 평균(그림상에서 점선으로 표현)의 경우, 신규구직자는 210만 원대에, 경력자는 230만 원대에 위치함.

〈경력유무별 희망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21년 9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희망 '월' 임금이며, 분류불능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